

# 도내 우수 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 · 홍보 나섰다

### 순창 장본가전통식품 '장류' · 완주 농부의 딸 '수제떡갈비' 남원 지리산부각 등... 전북중기청, 오늘 라이브커머스 진행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늘 전북지역의 우수 소상공인상품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부 소속 지방청을 권역으로 나눠서 총 8회차로 기획했으며, 전북청은 오늘 3회차를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 진행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우수 소상공인업체는 순창 장본가전통식품(장류), 완주 농부의 딸(수제떡갈비), 남원 지리산부각(김부각) 등 3곳으로 유망 특산품을 제조 판매하는 작지만 강한 소상공인업체다.

순창 장본가 전통식품 김순옥 대표는 "대한민국 장류 명인으로 지정된 전통 고추장, 된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에 진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늘 오후 6시

부터 19시까지 1시간 동안 업체당 20분씩 방영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치샵시다 플랫폼(https://v.dongbanmall.com)'과 '네이버 쇼핑라이브(https://shoppinglive.naver.com)'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코로나 사태로 '집콕 문화'가 퍼지면서 주요 유통채널이 되고 있으며, 판매자가 생방송으로 제품 정보를 소개하면 시청자들이 댓글로 의견을 교환하며 방송 창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중소 · 창업벤처 혁신기업 성장 돕는다

### 전북조달청, 테크노파크와 협약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7일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근의)와 도내 중소 · 창업벤처 · 혁신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우수 '중소 · 창업벤처 · 혁신기업' 대상으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및 혁신제품 발굴 ▲국내 · 외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상품등록 및 판로지원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공공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우수 중소 · 창업벤처 ·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 후보기업을 발굴해 전북지방조달청에 추천한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추천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창업 · 벤처기업 전문물 벤처나라 및 혁신제품 전문 상품물 혁신장터에 상품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조달업무 교육 · 자문 등을 통해 국내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에 등록된 전북지역 생산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박찬희 선수, 두번째 안소현 선수, 세 번째 박희성 선수, 아랫줄 왼쪽에서 첫 번째 이호린 선수, 최기람 선수,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정수빈 선수, 김스텔라 선수.

##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이 상생'

### 신협, 이호린 등 유망 골프선수들과 후원 협약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유망 골프선수 7명과 지난 26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후원 협약은 신협이 지속적으로 힘써 오고 있는 스포츠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신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진행했다.

후원 대상은 KJPGA의 ▲이호린 ▲최기람 ▲정수빈 ▲김스텔라 ▲안소현 선수와 KPGA의 ▲박찬희 ▲박희성 선수로 투어 성적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특히 최근 골프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안소현 선수를 서브 후원하는 등 잠재적 고객들에게 신협의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유망 선수들의 후원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상생(相生)'이라는 신협정신에 따라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후원이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 좋은 경기로 국민들에게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후원식에서 만난 이호린 ▲최기람 프로는 "드문 케이스인 시즌 중 후원이 진행되어 신협 덕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밝혔다.

신협은 이번 협약이 젊은층 및 여성층 중심으로 저변 확대되고 있는 골프 인구에 상생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한층 젊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기안전공, KESCO-구역전기사업자 기술협력세미나 열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구역전기협회 손동식 회장과 한국전력, 대한전기협회, JB(주), LG화학, JS엔지니어링 등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KESCO-구역전기사업자 기술협력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중계와 병행하여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분산형에너지 수용능력 평가'를 포함해 8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구역전기사업자와 설비안전과 정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김윤상 기자

## 대두식품, '자랑스런 농식품기업' 상 영예

###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시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용)는 27일 군산시에 소재한 (주)대두식품(대표이사 조성용)을 방문해 '2020년 제7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을 시상했다.

NH농협은행에서 주최하는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은 우수한 기업경영 성과와 성장잠재력을 갖춘 농식품 기업을 선정 ·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국내 10개 농식품기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우대, ▲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임직원 및 가족 초청 팜스테이 마을체험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전북 지역 기업 중 유일하게 수상한 (주)대두식품은 제과, 제빵, 떡 등의 양곡부문에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선도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쌀가루 브랜드인 '햇살마루'를 런칭, 쌀가루 산업화를 통해 우리농촌과 상생하는 농식품 기업이다.



조성용 대표이사는 "대두식품은 무방부제 생산을 철칙으로 양곡 산업을 선도해왔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농업 · 농촌과 함께하는 농식품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장기용 본부장은 "우리지역 농식품 기업의 성장은 곧 우리지역 농업인 · 농촌의 실익증진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상생협력력을 통해 우리 지역 농식품기업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우미건설 '완주 삼봉 우미린 오코포레' 분양

# 산단 직주근접 편의성 · 전주 생활권 '동시에'

###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차별로 청약 진행... 당첨자 발표 11일 · 계약 23~25일

우미건설이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이 분양에 돌입한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는 완주군 삼봉지구 B-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으로 ▲69㎡ 194가구 ▲79㎡ 34가구 ▲84㎡ 516가구 ▲84㎡B 74가구, 총 8187세대다. 선호도 높은 84㎡ 주택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청약 일정은 11월 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 계약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2가 1358-6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 조감도.

청약 일정은 11월 3일 특별공급,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 계약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2가 1358-6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는 전주 예코시티와 완주 소재 산업단지들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는 전주과학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과학연구단지 등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 단지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지구 외곽역을 이용하면 전주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가 들어서는 삼봉지구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의 총 9만1,500㎡ 부지에 조성된다. 앞으로 6,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초 · 중학교, 보건소 · 소방

서 · 파출소 ·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회적 공간도 들어선다. LH와 완주군은 삼봉지구내 건물 3개동(1,182㎡)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합했다. 열린 공간인 사회적 공간에서 거주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또한 전입, 결혼 · 임신, 출산 · 육아, 청년 · 노년, 귀농 · 귀촌 등 다양한 행복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물론 출산장려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오코포레'는 넓은 동간 거리가 특징으로 전세대 남향위주의 배치, 판상형 및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넓은 동간거리를 활용해 수경시설과 잔디마당을 갖춘 광장을 2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해 도보 안전성도 높였다.

공기질 모니터링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에어 클린(Air-Clyn)시스템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남녀노소 분리를 독서실과 이웃과 휴식을 나눌 수 있는 카페린이 조성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 '사과나무 가지치기', 기계로도 가능할까?

### 농진청, 연구 돌입... 노동시간 30~50% 절감에 목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작업이 고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기계화 연구에 돌입한다.

우리나라 과일 생산지 대부분은 인구가 적고 노동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인데다 고령화로 인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과나무는 형태(수형)가 단조롭고 심는(재식) 체계가 규격화돼 기계화가 어렵지 않지만 모든 생산 작업을 사람이 전담하고 있어 경영비가 많이 들고 대외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농진청 사과연구소에서는 현재 국외에서 활용중인 가지치기와 꽃송기 기계 장치를 국내에 처음 도입해 우리나라 과수원 조건에서 평가한 뒤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를 앞당길 계



획이다. 과수원 기계화는 트랙터에 가지치기(전정)와 꽃송기(적화) 기계 장치를 부착해 앞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트랙터 하나만 활용하면 기계화 전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잎송기 기계와 나무 아래(수관하부) 잡초를 제거하는 장치를 도입해 사과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계획이

다. 나무 형태와 심는 거리, 나무 밀집도, 관원 시설 등 전반적인 과수원 시스템을 갖춰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은 기계화 기술을 통해 현재 10아르(a)당 16시간이 드는 사과 재배 노동시간을 100시간 이하인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계적으로 기계 도입과 영향 평가, 기계 적용 기술 개발, 과수원 시스템 구축, 현장 실증 등을 추진해 3년 내 보급에 나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소장은 "산업체, 학계, 주산지 농업 기술센터와 연계해 과수원 기계화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사과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수출, 11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17.4% 증가

### 자동차 ·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주력 품목이 견인

전북도의 수출이 11개월만에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5억 7,575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동계품, 합성수지, 농기계,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웅)이 발표한 '2020년 9월 전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5억 7,575만 달러, 수입은 3억 9,467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던 주력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자동차가 26.7% 증가한 5,725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 7월에 이어 수스트럭의 스위스 수출이 주효했다. 동계품(\$4,402만, 40.3%), 합성수지(\$3,357만, 15.3%), 농기계(\$2,948만, 41.9%), 건설광산기계(\$2,862만, 19.1%), 기타화학공업제품(\$2,334만, 51.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990만, 817.5%)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에 정밀화학

원료(\$5,544만, -2.8%), 자동차부품(\$2,380만, -12.5%), 농약 및 의약품(\$2,046만, -27.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20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세도 유지됐다. 종이제품(1,845만, 34.9%), 플라스틱제품(\$1,181만, 27.0%), 농산가공품(\$1,161만, 13.7%), 반도체(\$1,108만, 9.7%), 인조섬유장섬유사(\$998만, 41.0%), 전기부품(\$875만, 144.2%), 식물성물질(\$812만, 111.6%), 철강관(\$743만, 16.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452만, -9.5%)을 제외하고 중국(\$1억 3,169만, 15.8%), 미국(\$8,852만, 28.1%), 베트남(\$4,850만, 42.5%), 폴란드(\$2,305만, 117.9%) 등 주력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났다.

/김윤상 기자

### 철보농협서 '농업인 행복버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철보농협(조합장 권혁진)은 27일 정읍시 철보농협에서 관내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 나눔 실천 일환인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업인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눈 검안 및 검안에 따른 맞춤 돋보기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나눠서 입장하고 사전에 행사장 소속, 행사 담당은 행사 참여자와 관계자 모두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됐다.

박성일 본부장은 "농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